

科學技術雜誌의 歷史的 考察 (下)

— 初創期에서 現在까지 —

慶熙大 講師 白 淳 在

1930年 10월에 創刊된 「白頭山」은 과거의 科學誌가 한결같이 成人을 대상으로 편집된것에 反하여 唯一한 少年科學誌라는 特殊性을 가지고 發刊된 것이다.

雜誌의 體裁는 菊版으로 總 150여페이지에 다 附錄으로 「싸이엔스 카-드」까지 수록되었고 用紙는 모조紙를 사용한 위에 많은 사진畫報를 삽입한 몹시 호화로운 雜誌로 發刊된 것이다.

編輯兼 發行人은 韓慶錫, 發行所는 白頭山社 였다. 雜誌의 壽命은 그리 길지 못하고 겨우 5號정도로 그친것이다.

「타이틀」을 白頭山으로 表示하였다는 자체가 은연중, 민족성을 불리일으킨것으로 해석되어 지며, 그만큼 少年을 위한 科學啓蒙誌로서, 興味와 關心을 북돋아준 바가 컸다. 당시의 科學誌의 發刊使命이 雜誌의 企業的 經營面에 主目的을 두기에 앞서서 當時 우리의 處地가 植民地支配란 特殊한 狀況과 그속에서 만들어진 前近代의 退嬰性에서 벗어나기 위한 課題가 急先務였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特히 科學的 知識의 落後는 더욱 政治的 絕望과 民族의 큰푸렉스를 가져오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民族指導者들은 科學教育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제2세 국민에 대한 教育을 切感했던 것이다.

「白頭山」이란 科學誌는 실로 이러한 要求에서 發刊되어진것이니, 경영은 第二義的인 문제였던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白頭山」은 「白頭山理學會」라는 團體를 배경으로해서 發

행된것이니, 이의 創立趣旨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렸을때 1年동안 工夫하는 것이, 자라서 몇십年동안 하는것보다 좋다는것은 學者의 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工夫하는 기관(機關)이 많은 가운데, 가장 긴요하고 필요한 이과연구(理科研究)의 기관이 없다는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느낀바 있어, 최신 과학을 주로하여 절대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잡지, 백두산을 발행하는 동시 백두산이학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돈을 쓰우지 않고, 이과(理科)를 工夫하시게 하도록 하자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입회하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찬성하시고 많이 입회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白頭山理學會의 會則을 살펴보면 첫째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학(理學)을 지도하기 위한것이고 둘째 野外觀察 工場見學, 製作講習展覽會, 發表會, 講演會, 科學映畫會, 科學童話, 實驗會等을 開催하는것을 主事業으로 삼고 있다.

한편 雜誌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科學誌가 흔히 專門的 學術論文만으로 一貫되어 극히 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해온 難解와 專門性을 脫皮하여 科學的 諸問題를 童話 또는 歷史物을 中心으로 한 興味の 編輯態度를 取하면서도 科學研究誌로서의 性格을 그대로 지녔다는 점에 새로운 평가를 가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

다. 가령 여기에 이러한 編輯上의 特色을 더듬어 보기 위하여 內容目次를 紹介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갖가지 科學에 관한 사진화보가 수록되었음은 앞서도 말한바 있으나, 記事만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양의 이야기. ○얼음 지치는 法. 스킵팅 練習은 이렇게 하라.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 안들리는 소리—재미있는 음파(音波)연구. ○당신의 뱃속에 있는 무서운 벌레를 이렇게 없애시오. ○少年技士養成—白頭山讀本. ○새로 발견된 폴루토(地王星)의 그후 이야기. ○재미있는 상대성 원리. ○게임의 영특한 지혜. ○씨어렌. ○자양이 풍부한 明太魚 이야기. ○밤중에 편지 전하는 비둘기. ○로켓트 天空船타고 月世界旅行. ○초 하나 가지고 불 두개 켜는 法. ○歷史로 빛나는 白頭山. ○메사공의 生活. ○로봇트 新聞. ○黃金童의 닭동우리. ○아인슈타인. ○白頭山 구경한 九藏童. ○星座와 神話. ○孤兒(長篇小說). ○讀者 研究欄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흔히 科學雜誌가 讀者를 잃기 쉬운 學術的 專門的 性格을 止揚하여 讀者의 興味를 集中시키고 우선 이러한 方向으로의 애쓴 흔적이 역역하지만 이 또한 少年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음에 자연 이러한 性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음도 이해되는 바일것이다.

여하튼 「白頭山」은 科學誌로서, 어린 少年에게 科學思想을 普及하고 科學的 研究心을 돋구는데 훌륭한 구실을 해 오도 사실이였으며 少年들의 재미있는 벗으로의 讀書慾을 길러준 데에도 큰 구실을 해왔다고 볼것이다.

1933年 6월에 創刊된 「科學朝鮮」은 명색공히 완전한 科學誌로서의 性格과 또한 雜誌體 裁面에서나 雜誌가 지닌 普及性 또는 雜誌生命에 있어서도 完全히 成功된 唯一한 雜誌라고 볼 수 있다.

韓國科學誌의 過去가 內容이나 體裁問題에 있어서 아직도 完全한 學術的 領域을 못벗어

나고 또한 編輯 經營面에서도 本格的 領域에서 刊行되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유치하였던 점에 비추어 더욱 이의 意義나 價値는 큰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科學誌가 어찌서 過去에는 보다 專門誌의 性格을 지니지 못하고 또한 雜誌로서도 成功하지 못했나 하는 점은 그 문제대로가 韓國의 科學水準과 科學에 대한 一般大衆의 認識度와 相關圖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要因을 克服하고, 비로소 科學誌다운 科學誌가 刊行되었다는 事實은 첫째가 科學에 對한 認識이나 水準이 높아진 結果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被支配民族으로서의 政治的 獨立을 일고자하는 念願이 自然 科學實力의 向上에서 左右되어짐을 간과한 民族의 切感의 所致라고도 볼수가 있다.

「科學朝鮮」은 決코 一個人의 經營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發明協會란 韓國科學陣을 망라하고 韓國의 衆智를 모은 集團的 체제를 갖춘데서 發行되어졌다는 점에서도 以上の 理由를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發明協會는 1924년에 創立되었으며 이곳에서 發行된 機關誌가 곧 「科學朝鮮」이었던 것이다.

發明協會의 創立目的은 두말할것도 없이 科學의 後進性을 克服하여 나아가서는 民族獨立의 基礎를 공고히 하자는데 있었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發明協會規約에서 그 目的을 「本會는 會員의 工業的 知識의 普及과 發明의 精神의 向上을 圖함으로써 目的함」이라고 밝혀있다. 이를 더 具體的으로 論하여 본다면 發明協會의 當面課題는 發明思想을 宣傳普及하고, 스스로 文明의 利器를 生産하며 貧弱한 韓國을 富強케 함에 있었다고 볼수 있다.

「科學朝鮮」은 1933年 6월에 創刊되어 滿 1年만인 1934年 6월에는 休刊에 들어 갔다가, 1935年 2월에는 發行人 名儀가 發明協會에서 科學知識普及會로 移管되면서 續刊되어 나온 것이다. 發行人의 名儀가 이렇게 變更되어진 理由는 그만큼, 科學知識이나 關心이 高次的인 民族의 關心으로 集中表出되어 졌다는 것을

또한 뜻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一端은 同誌 續刊號(1935年 2月號) 가운데「本誌 續刊에 臨한 感懷와 抱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있다.

「世界 어느 民族이나 生에 대한 慾求는 아마 共通의 心理일까한다. 이 慾求를 滿足하기 爲한 手段方法은 各其 知識의 程度를 따라 다르기는 하지마는!

오랜 歷史를 가지고 2千3百萬의 生靈을 兄弟로한 우리 朝鮮民族도 오늘날에 이르러 남과 같이 살아보라는 慾求가 甚하여 진것은 事實이다. 그래서 모든 方面의 人士들이 各其 自己的 專門方面으로 躍進的 工作을 게을리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깨닫지 아니할 수 없다.

科學의 部門에 對하여도 비록 實地方面에 있어서 남과 같은 모든 器具機械와 日用物品과 모든 武器와 모든 交通機關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程度에 이르지 못하였을 망정 그런것을 우리도 만들어보라는 意氣는 오늘날에 이르러 매우 極甚하여졌다.

昨年 即 1934年 4月 19日에 半島江山이 흔들릴만큼 외치고 부르짖든 科學「데이」의 첫 소리는 確實히 그러한 表徵을 보여준 것이었고 그 외치고 부르짖은 소리는 더욱 우리 朝鮮의 科學運動을 促進케 한 것이었다.

그래서 7月 5日에는 社會有志 百餘名이 糾合하여 비로소 科學知識普及會를 組織하여 科學運動의 先鋒이 되기를 自處實行하기로 되었으니, 이것은 朝鮮이 世界科學戰線에 立한후 第一歩의 手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以下略……」

科學知識 普及會는 科學者만이 망라된 團體라기 보다는, 위에서도 理解되는 바와같이 科學의 發達이 곧 民族純活의 重要 모뜨였기에 全民族의 知識人, 教育人의 망라된 有意義있는 것으로 조직되어진 것이다.

그의 目標는 生活의 科學化, 科學의 生活化에 있었으며 그 主張한바로는「우리의 모든 生活方法을 科學의으로 改善하자! 一切 文化運動의 基礎를 科學으로 다시 쌓아올리자! 다

같이 손잡고 科學朝鮮을 建設하기 爲하여 奮起하자!」였으며 重要한 事業計劃으로

가. 科學에 關한 圖書雜誌 編纂發行

나. 學校教育의 自然科學敎導의 連絡

다. 大衆에게 科學을 普及시킬 方途에 關한 調查研究

라. 講演會, 座談會, 實驗會, 科學普及隊展覽會, 見學團等의 隨時行事

마. 科學活動寫眞의 撮影及 上映

바. 科學標品の 採集 製作 販賣及 其代理

사. 「科學데이」(4月 19日의 行事)

아. 全面的 文盲退治事業

以上에서 「科學朝鮮」의 發刊趣旨는 어느程度 理解하여 볼수가 있다. 한편 이러한 科學知識의 普及을 爲하여 어떠한 編輯內容을 갖추었나 하는 점을 考察키위하여 發明學會當時와 그뒤 科學知識普及會에서 發刊된 目次만을 比較해 보므로써 各己의 特色을 찾아보는것도 興味로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筆者의 便誼上 第1卷 2號와 第3卷 1號만을 掲載키로한다.

◇發明과 科學 ◇發明學會誌의 創刊을 祝함

◇發明家의 精神的 特徵

◇理化學研究所 設立의 必要

◇發見과 發明과의 關係

◇地球의 生成史

◇電氣科學界의 諸恩人

◇天體와 地球와의 距離比較

◇아니될 相談 永久運動

◇通俗 라디오 講話

◇採鹽高調

◇發明家は 養成할수가 있나?

◇植物體는 一大秘密工場

◇電機工業의 發展

◇汚點 撇는法

◇食物과 營養

◇主要한 食品의 分析表

◇科學餘談

◇發明 뉴스

◇特許新案公告

- ◇ 發明公告抄
 - ◇ 고무의 史的「로-만스」
 - ◇ 各國의 工業 所有權出願과 其 特許 及 登錄件數 比較表
 - ◇ 科學常識片
 - ◇ 科學朝鮮에 付託하는 말
 - ◇ 質問과 應答
 - ◇ 發明學會 設立準備會會錄
 - ◇ 發明學會 創立總會錄
 - ◇ 發明學會 理事會錄
 - ◇ 特別大懸賞問題(以上 第1卷 2號)
 - × ×
 - ◇ 科學畫報
 - ◇ 本誌續刊에 臨한 感懷와 抱負
 - ◇ 科學戰線에 立한 朝鮮
 - ◇ 發明家の 精神의 特徵
 - ◇ 日本 特許發明의 大勢
 - ◇ 원숭이는 人間의 祖先인가
 - ◇ 地球의 나이는 20億年
 - ◇ 붓과 종이의 來歷
 - ◇ 發明에 成功하는 道
 - ◇ 科學知識普及會一覽
 - ◇ 工業所有權保護同盟圖表
 - ◇ 金鑛鑑定의 要訣
 - ◇ 發明界에 加一言
 - ◇ 進化過程으로 본 人類의 足跡
 - ◇ 科學世界의 將來
 - ◇ 朝鮮工業界의 展望
 - ◇ 科學知識
 - ◇ 科學普及機關을 設置하라
 - ◇ 昆虫生活의 裏面
 - ◇ 소와 航空機
 - ◇ 메-돌 換算速成法
 - ◇ 速力比較
 - ◇ 科學뉴스
 - ◇ 全世界는 分子의 世界
 - ◇ 科學的 世界知識
 - ◇ 會況報告(以上 第3卷 1號所載)
- 以上的 比較를 通해서 理解되듯이 雜誌編輯 內容面에서는 그다지 大差를 發見할 수 없다.

背景인 機關이 바뀐데 反하여 內容上의 큰 變動이 있을 것으로 크게 예상되나 여전히 連載物을 續刊에도 掲載한 點이라든가, 筆陳 같은 얼굴들이 많이 發見되는, 이러한 일들은 科學이란 特殊한 學問의 筆者難을 보여주는 例도 되겠으나, 어느 面에서는 一貫된 編輯態度였다는 點이 또한 注目되는 것이다.

雜誌 經營面에 있어서도 科學知識普及會가 組織되었음은 組織의 強化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그 組織을 全國의으로 擴大하여 이에 따라 全國에 걸친 普及을 위한點은 과거 어느때 잡지보다도 經營面을 重視한 本格的 잡지 出刊이라고 할 수 있다.

雜誌體裁面도 四六倍版이었으니 科學에 關한 많은 寫眞畫報와 統計를 掲載하기에 적당히 하여 讀者의 興味와 資料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했다는 點은 지금의 雜誌에서도 쉽게 흉내 낼수없는 훌륭한 體裁였던 것이다.

雜誌의 壽命도 讀者획득이 극히 어려운 專問誌, 科學誌란 限定性을 벗어나 大衆과의 접촉을 꾀하여 메스 미디어로서의 완전히 성공한 잡지였다. 그 증거로서 과거의 韓國雜誌의 壽命이 創刊號가 그대로 終刊號가 되기쉬웠고 그렇지 않다면 길어야 10號內外가 고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科學朝鮮」은 解放되기 前까지 즉 1944年까지 11年 동안의 長壽를 누렸다는 點이, 그대로 잡지가 독자에게 읽혀주는 메스미디어로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라 보지않을 수 없다.

「科學朝鮮」이 우리의 科學發達에 공허한바는 실로 컸지만 그 걸어온 길은 決코 順坦한 그대로의 길은 아니었다.

가령 이것이 末年에 가서는 日人의 간섭과 탄압으로 해서 內容이 變質되었다기 보다는 戰爭記事에다 日文이 거의 獨占되어 실로 만신창이의 참혹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하여졌으니 그 理由는 民族史가 걸어온 어찌할 수 없던 不幸한 受難의 記錄이었고 순전히 他意에서 이렇게 되어야만 될 運命을 그도 排除할 수는 없었던 點에서 理解할 수가 있다. ■